



심장질환 골든타임 확보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이창재 과장

119 신고 → 응급처치 → 3분 이내 병원으로

심정지 흉부압박 속도 1분당 100회 이상·깊이 5cm 적절

심장돌연사 80%는 관상동맥 이상...동맥경화 성인병 주의

자영업자 정용택(62·가명)씨는 지난해 단풍 나들이에 나섰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급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한 동안 호흡이 정지되는 응급상황을 겪었던 것이다. 다행히 늦지 않은 시간에 병원으로 이송된 정씨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과 그에 대한 약물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응급의학과 이창재 과장은 “가을철 야외활동은 큰 폭의 온도차와 갑작스러운 운동량 증가로 심장에 무리가 가기 쉽다”며 “평소 동맥경화 등 성인병이 있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풍 보러 나섰다 응급상황 다했다? =명산마다 단풍을 만끽하려는 등산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산행이나 여행은 권장할 만 하지만,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에는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해충이나 벌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빠르게 소독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후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짙은 냄새의 향수나 화장품을 피하고, 혹은 나 있을지 모를 감염병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해두는 것이 좋다. 넘어지거나 굽혀 상처를 입었을 때도 소독 후 지혈이 이뤄져야 하고, 만일 피부 안으로 이물질이 박혔다면 이를 제거해야 한다. 출혈이 심하다면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상처 주위의 동맥점을 압박해 지혈이 빠르게 이뤄질수록 하는 것이 좋다.

심장 질환의 위험은 특히 투철한 대비를 요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국 각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104건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54건이 ‘심장돌연사’였다. 평소 사망할만한 질병을 진단받

지 않았고, 특이 증상을 느끼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심장 발작을 일으켜 사망하게 되는 ‘심장돌연사(심인성급사)’는 야외에서 발생했을 때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처치까지의 시간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길기 때문이다.

◇골든타임 확보하는 키워드는 ‘응급처치’=심장돌연사의 80%는 관상동맥 이상으로 일어난다. 심장으로 향하는 관상동맥은 막히거나 터졌을 때 심장으로 전달되는 산소와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실신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관상동맥 등 혈관에 이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급격한 온도 저하나 강도 높은 운동으로 인한 맥박수 증가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혈관이 수축해 경직되면 혈관이 쉽게 막히거나 터지는 것이다.

산이나 국립공원 등의 야외에서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는 3분 안에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119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주변인에게 제세동기를 요청한 후 대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혀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우선 대상자의 양 쪽목지 사이 가슴 정중앙에 위아래로 깎지듯 두 손으로 강하고 빠르게 흉부압박을 실시한다. 흉부압박은 분당 최소 100회 이상의 속도로 최소 5cm 이상의 깊이로 눌러준다.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가 적당하나 인공호흡에 자신이 없을 경우 가슴압박만 실시한다.

응급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의류와 충분한 수분 공급을 취할 수 있는 음료를 준비해야 한다. 급수 부족은 혈액의 점성을 높여 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흥분에 조이는 듯한 통증이나 무거움, 놀리거나 쥐어짜는 듯한 느낌이 있다면 심장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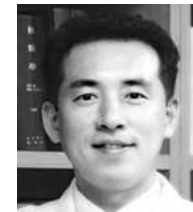
일상생활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인공호흡 등 응급처치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육에 무리가 간 것이므로 야외활동을 중단한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지 않았는지, 평소보다 심하게 숨이 찬 느낌이 들지 않는지 확인한다.

맥박은 손목의 맥을 짚었을 때 20초를 쯤 맥박수에 3을 곱해 측정한다. 1분에 70~80회 가량의 맥박을 정상맥으로 보거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맥박이 일정하다고 해서 흉통 등의 전조증상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심장에 무리

를 줄 수 있는 지나친 음주나 흡연은 금물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응급의학과 이창재 과장은 “인근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와 함께 방문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좋다”며 “연로하거나 평소 심장질환이 있었다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민정준 교수



강세령 교수



조상건 전임의



윤미선 연구원

전남대병원, 대한핵의학회 학술상 석권

아시아·오세아니아 학회 공동 주최...‘젊은 연구자상’도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핵의학 교수·연구진이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회(회장 범희승)와 대한핵의학회(회장 이재태)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대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학술대회’와 ‘제54차 대한핵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는 34개국 9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이 대회에서 화순전남대병원 민정준 교수는 대한핵의학회 학술상 중 최고 영예인 ‘핵의학학술상’을 수상했고, 강세

령 임상진료교수는 ‘후지필름 학술상’을 수상했다.

‘후지필름 학술상’은 대한핵의학회의 공식 영문저널인 ‘뉴클리어 메디신 & 몰레큘러 이미징(Nuclear Medicine and Molecular Imaging)’에 지난해 실린 논문 중 최우수논문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조상건 전임의는 대한핵의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으며, 윤미선 연구원(분자의학협동과정 박사과정·지도교수 민정준)은 아시아·오세아니아 핵의학회 ‘젊은 연구자상’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최지윤 교수, 얼굴성형 전문서 출간

조선대 이비인후과 최지윤 교수가 최근 ‘최신안면성형재건(근자출판사)’을 출간했다.

최근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안면 성형에 관한 최신 기술과 임상경험 지식을 담은 전문서적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표 집필자인 최지윤 교수는 미국 Stanford 대학, UC Davis 대학, Oregon 대학 등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하며 익힌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최고 이비인후과 교수 7명 ▲가천의대 강일규 교수 ▲경희의대 이경희 교수 ▲가톨릭의대 이주형 교수 ▲한양대의대 정진혁 교수 ▲부산의대 조규섭 교수 ▲힐링앤뷰티클리닉 송형민 원장 ▲UC Davis Medical Center Jonathan Sykes 교수와 2년간의 준비 끝에 이 책을 출판하게 됐다.

이 책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2015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출판품의 학적 중 높은 품질을 인정받아 참여자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다양한 삽화와 수술 사진을 첨부해 안면 성형을 공부하는 전공의에게는 참고 서적으로, 전문의에게는 다양한 수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지윤 교수는 “안면 성형은 얼굴의 미학을 다루는 의료분야로 최신 의학 기



술은 물론 환자에 가장 적합한 안면분석을 통한 의료적 접근법까지 담아내려 노력했다”며 “교환교수로 연구하면서 새로운 기술, 합병증 사례와 대처법, 느낀 점 등을 적어놓은 저만의 노트가 잘 정리돼 국내 성형 재건분야에 학문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지윤 교수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 안면성형학회에서 2년간 연구 후 조선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안면성형, 비성형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코성형 수술방법에 사용되는 ‘비중격 연장기’ 특허를 내어 큰 주목을 받은바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기술지원업체, 미국에 의료기기 수출

조선대학교의 치과병원 정밀장비 및 부품 지역혁신센터·치과병원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센터장 김수관)의 기술지도로 액상흡입제포를 이용한 구강압 진단법 등에 관한 MOU를 체결했던 (주)코아바이오텍(대표이사 김선동)이 미국의 셀솔루션(CellSolutions)사와 액상세포도말기를

미국에 수출하는 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 액상세포도말기는 광주테크노파크 사업의 일환인 시제품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내의 연구개발 동향파악 및 산업기술 사업과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정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삼화/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 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 기업입니다.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경매, NPL 업무에 관심있거나 참여하실분 선정 모집합니다.

NPL매입, 중개, 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락잔금 대출 지원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부동산중개법인

사업자등록번호 464-88-00084 / 법인등록번호 200114-0058676